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4월 ~ 5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설탕, 관세, 산업, 세이프가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중국, 설탕, 관세, 산업, 세이프가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7. 27
중국 광시당업협회,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

2016. 9. 22
중국 상무부,
세이프가드 조사 시작

2017. 5. 22
중국, 수입산 설탕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핵심이슈
도출

“중국, 수입산 설탕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중국, 수입산 설탕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5월 22일, 중국이 자국의 설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 혹은 수입량 제한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를 하는 제도이다. 2016년 9월부터 진행했던 수입산 설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중국 상무부는 수입산 설탕의 증가로 인한 중국 설탕 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세이프가드 실시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에 걸쳐 추가 관세 조치는 점차 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입 쿼터 외 수입 설탕에 대해 2017년 5월 22일부터 2018년까지 5월 21일까지 45%, 2017년 5월 22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40%, 2019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3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세이프가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산 설탕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당과 식용 및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설탕, 흑설탕, 가루 설탕, 갈색 설탕 등의 완제품 설탕을 포함한다.

중국은 연간 설탕 수입 쿼터를 194만 5천 톤으로 지정하고, 쿼터 초과 물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쿼터 초과 물량은 기본 관세율 50%에 세이프가드로 인한 추가 관세율까지 더해져 단계별로 각각 95%, 90%, 8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 수입된 한국산 설탕은 19만 6천 톤이며, 중국 총 설탕 수입량의 6.4%를 차지했다. 중국의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함에 따라, 중국으로 설탕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중국 정부는 ‘국산 설탕으로 국내 설탕 수요를 충족하고, 부족한 공급량을 적절히 수입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내 설탕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중국 측은 자국 설탕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설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동된 관세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수입 쿼터 물량 확대 및 관세율 인하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1. 商务部公告2017年第26号 关于对进口食糖采取保障措施的公告,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7.5.22.
2. 中国对进口食糖采取保障措施, 新浪财经, 2017.5.25.